

“늦춰야 이긴다” vs “이재명 죽이기”…3시간 난타전

민주 의원총회 경선연기 정면충돌 24명 발언 14명 찬성·9명 반대 송영길 마무리 발언, 이낙연축 발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대선경선 일정을 결론내지 못하고 오는 25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22일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가 정면 충돌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선 연기파는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중정이라며 흥행을 명분 삼아 이재명 경기지사사의 ‘통 큰 결단’을 압박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경선 연기론을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의총은 ‘이재명 대 반(反) 이재명’ 진영 간 세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25일 재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당무위 요청 움직임이 이어지며 갈등은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 3시간 마라톤 의총서 24명 발언…14명 “연기” vs 9명 “반대” 갑론을박=10시 30분께 시작된 의총은 3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시 20분께야 끝났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2대2 찬반토론을 포함해 24명의 의원들이 ‘제파 대리전’을 펼쳤다.

찬반토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 홍기원 의원, 김종민 의원이 대선 후보 선출을 11월로 늦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계 김병욱 김남국 의원이 맞서 반박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20명의 의원이 발언 기회를 신청해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김민석 박영순 박재호 서영교 설훈 신동근 이병훈 장철민 전재수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12명이 경선 연기론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 이준석 현상 등이 충분히 당헌당규상 (경선일정을 변경할) 상당한 사

유가 된다”며 “흥행 속에 국민경선처럼 하려면 11월에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중부세 완화나 부동산 의혹 의원 출당 문제 등에서 옳고 그름보다는 대선 승리에 초점을 맞췄는데, 경선 일정 문제에서만 원칙론을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역동적인 경선으로 당을 통합하려면 앞서가는 사람이 통 크게 결단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이 지사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박성준 안민석 이수진 이탄희 조웅천 조정식 황운하 의원 등 7명은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김남국 의원은 “흥행이라는 것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이다. 당장 국민의원 이준석 대표도 코로나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흥행에 성공했다”며 “100m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90m 경기로 바꾸자고 하면 어떡하느냐. 더는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웅천 의원은 “4·7 재보선 패인된 위선과 무능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극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려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며 “떡 잘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실 생각을 하니 짜증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개 의총 주장도…송영길 마무리 발언 놓고 이낙연축 발끈=경선 연기파에서는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세였는데 막판에 이재명계에서 3~4명의 반대 발언자를 억지로 추가했다”고 했고, 반대파에서는 “우리는 발언을 자제했는데 연기파에서 중진들까지 나서서 등 짜고 나온 것 같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신경전도 극에 달했다. 설훈 김민석 의원은 의총을 공개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대표의 마무리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송 대표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도부에서 판단하겠다. 오늘 오후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일각에서 즉각 “그런 거면 의원총회를 왜 하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송 송 대표가 “그럼 당 대표는 왜 불느냐”고 반박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회의 공개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송 대표는 또 지난해 8월 현행 경선 일정을 규정 한 특별 당규를 만들 때를 거론하며 “이낙연 전 대표 등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의사를 물어봤고, 다들 합의한 내용”이라는 취지라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 캠프 오영훈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 “당시 이낙연 당대표 후보자는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니 지혜를 모아달라’고만 말했다”며 “‘180일 전’ 틀대로 하자고 얘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윤석열 X파일’ 공세 강화 “실체 있는 것으로 보여…윤 사퇴각”

“야권서 나와 거기서 해결해야” 윤측 “여 개입했다면 불법사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X파일”이 터져 나왔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은) 사퇴 각오로, 계속 (정치행보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경선기획단 공동단장으로 내정된 강훈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X파일’의 출처가 민주당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아니다”고 일축한 뒤 “(야권) 진영의 유력 주자에 대해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진실 여부를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출처가 우리(민주당)라면서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윤석열 X파일’이란 말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거기서 해결돼야 한다.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건 불필요한 논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 토론회 참석 뒤, ‘윤석열 X파일’ 논란과 관련, “저도 요약된 것 비슷한 것을 보기는 봤다”며 “정치는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치 세계에 일찍 들어오고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입장에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시간을 끌면 의혹과 관심은 증폭되고 사실과 다르더라도 절반 이상은 다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자신과 가족 등의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논란과 관련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릴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라.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면서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북미대화 진전 선순환 위해 협력해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침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한미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간 의미있는 대화·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밝혔다”고 박 대변인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였고, 미국이 돌아온 것을 나를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이 호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성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하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에 축하의 뜻을 표한 뒤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이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사진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

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을 접견한 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